

2024.05.30.(목) 증권사리포트

에코앤드림

시작된 전구체 출하

[출처] IBK투자증권 이현욱 애널리스트

24년 1분기, 이차전지소재 매출 발생의 해

에코앤드림의 1Q24 매출액 191억원(YoY +98.7%), 영업이익 -6.4억원(YoY 적자지속)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집행 예산 감소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치는 마무리 단계로 촉매 시스템 부문 매출액은 저조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의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로 촉매의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촉매소재 매출액은 59억원을 기록했다. 24년 1월 2차전지 소재 고객사와 5년간 하이니켈 NCM 전구체 공급 계약 체결 이후 1분기부터 본격 전구체 관련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구체 매출액은 107억원(1Q24 매출 비중 56.2%)을 기록하였다.

전구체 CAPA 5천톤에서 3.5만톤으로, 중장기 10.5만톤 목표

에코앤드림의 전구체 CAPA는 24년초 5천톤(CAMP1, 청주)에서 25년초 3.5만톤(CAMP2, 새만금)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2030년에는 10.5만톤 CAPA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동사의 전구체 관련 매출은 지연되었으나 23년 12월 IRA FeoC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북미향 전구체 쇼티지가 예상되며, 24년 1월 2차전지 소재 고객사와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본격 전구체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전구체향 발생 가능한 매출(출하량 90%, ASP \$18/Kg, 환율 1,300원 가정)은 5천톤 기준 1,053억원, 3.5만톤 기준 7,371억원, 10.5만톤 기준 2.2조원이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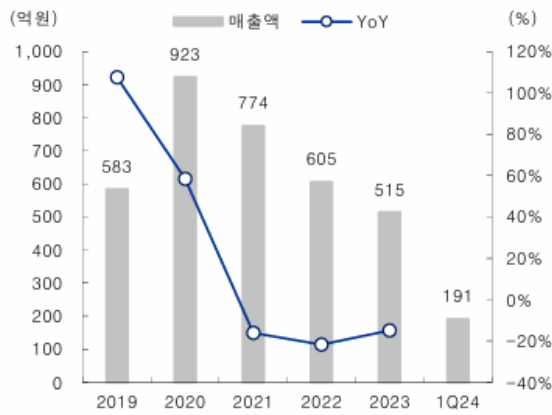
쇼티지가 예정된 전구체 시장

양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40%,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전구체 수급은 양극재 및 배터리 기업에게 중요한 이슈이다. IRA 광물 규정에 따라 25년 1월부터 북미향 양극재의 탈 중국화가 필요한데 현재 글로벌 전구체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 전구체 쇼티지가 전망된다. 동사의 전구체 5천톤 CAPA 기준 발생 가능한 최대 분기 매출액은 250억원 수준이며 1분기 107억원을 시작으로 2분기 180억원, 하반기 분기별 220억원 수준의 매출이 기대된다.

(단위:억원,배)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0	0	774	605	515
영업이익	0	0	76	23	-30
세전이익	0	0	108	-10	-123
지배주주순이익	0	0	100	1	-102
EPS(원)	0	0	970	7	-907
증가율(%)	0.0	0.0	0.0	-99.3	-13,573.5
영업이익률(%)	0	0	9.8	3.8	-5.8
순이익률(%)	0	0	12.9	0.2	-19.8
ROE(%)	0.0	0.0	14.0	0.1	-11.3
PER	0.0	0.0	31.5	3,586.0	-24.5
PBR	0.0	0.0	4.4	3.2	2.5
EV/EBITDA	0.0	0.0	32.8	63.0	-48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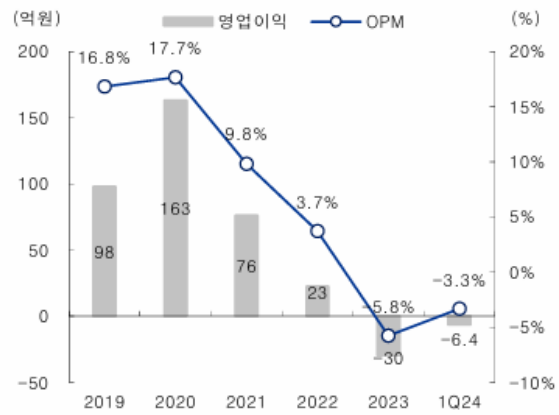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에코앤드림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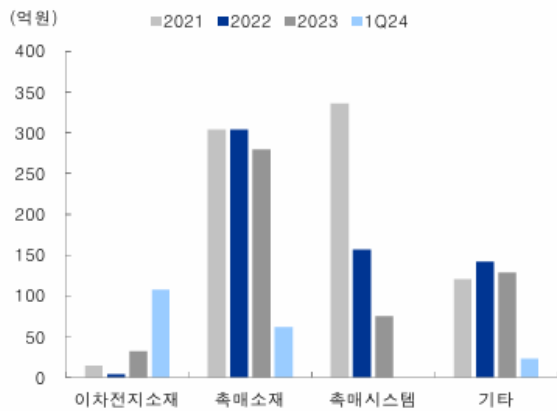
자료: 에코앤드림, IBK투자증권

그림 2. 에코앤드림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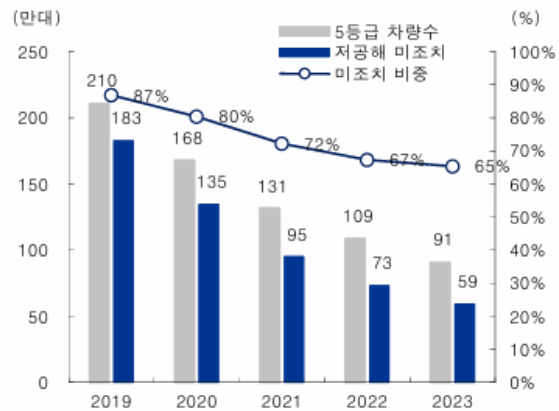
자료: 에코앤드림, IBK투자증권

그림 3. 에코앤드림 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에코앤드림, IBK투자증권

그림 4. 5등급 차량 현황



자료: 환경부, 에코앤드림, IBK투자증권

미국 반도체 보조금 수령 전망

SKC의 반도체 유리 기판 애플릭스는 미국 정부로부터 \$7,500만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이 제정한 반도체법에 따른 것으로, 총액 \$7,500만 중 \$4,000만는 올해 연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동사의 미국 조지아 공장 총 투자금(\$3억)의 25%로 현재까지 CHIPS 반도체 지원 보조금 수령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동사는 향후 대규모 라인 증설 시 추가적인 보조금 신청을 통하여 투자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애플릭스는 올해 1분기 조지아 1공장을 완공하였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올해 2분기 샘플 테스트 후 올해 하반기에 최종 신뢰성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생산을 택한 1공장에 이어 2공장은 대규모 생산 방식으로 시장 성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2공장은 연간 1.2만M2를 생산할 수 있어 1공장 대비 5~20배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보다 더 많은 회로/장비를 적용할 수 있고, 전송 데이터 손실이 작고, 고속 데이터를 전송 가능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즉 유리기판은 AI에 최적화되어 있다.

ISC, 본격적인 체질 개선 효과 발생 중...

연결 자회사인 ISC는 동사에 편입된 이후 본격적인 체질 개선과 신사업 확보를 진행 중에 있다. 우선 비용 절감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베트남으로 라인 이전을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또한 AI 가속기 관련 양산 소켓 매출은 올해 1분기 증설 라인 램프업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SK엔펄스의 주요 제품(CMP, BlankMask)도 3분기부터 통합될 경우 추가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하반기 동박 실적 개선 전망

Body 동사의 하반기 동박 실적은 작년과 올해 상반기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공장 고객사 인증 이후 물량 증가 및 가동률 개선에 따른 고정비 절감 등에 기인한다. 올해 2분기에는 말레이시아 플랜트의 국내 주요 고객사 인증 등이 완료될 전망이며, 신규 중장기 공급계약 등이 발생할 전망이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387	1,571	2,070	2,957	3,500
영업이익	186	-216	-132	145	274
세전이익	190	-402	-302	-24	50
지배주주순이익	-68	-276	-97	-13	27
EPS(원)	-1,805	-7,276	-2,554	-338	719
증가율(%)	-131.0	303.1	-64.9	-86.8	-312.8
영업이익률(%)	7.8	-13.7	-6.4	4.9	7.8
순이익률(%)	-1.0	-20.8	-5.7	-0.5	0.9
ROE(%)	-3.7	-17.6	-6.9	-0.9	2.0
PER	-49.0	-12.5	-54.7	-413.4	194.3
PBR	1.9	2.4	3.8	3.9	3.8
EV/EBITDA	13.0	-169.4	171.9	24.5	17.2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한전KPS

단단해진 원전 수주 pipeline

[출처] NH투자증권 이민재 애널리스트

예외없던 지난날

한전KPS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1) 한수원 주도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가 최소 6기 이상 구체화되고 있으며, 2) 경영평가 등급 발표(6월)로 인한 총당금 이슈 역시 제한적이고, 3) 안정적인 실적으로 작년에 이어 높은 배당수익률(5% 이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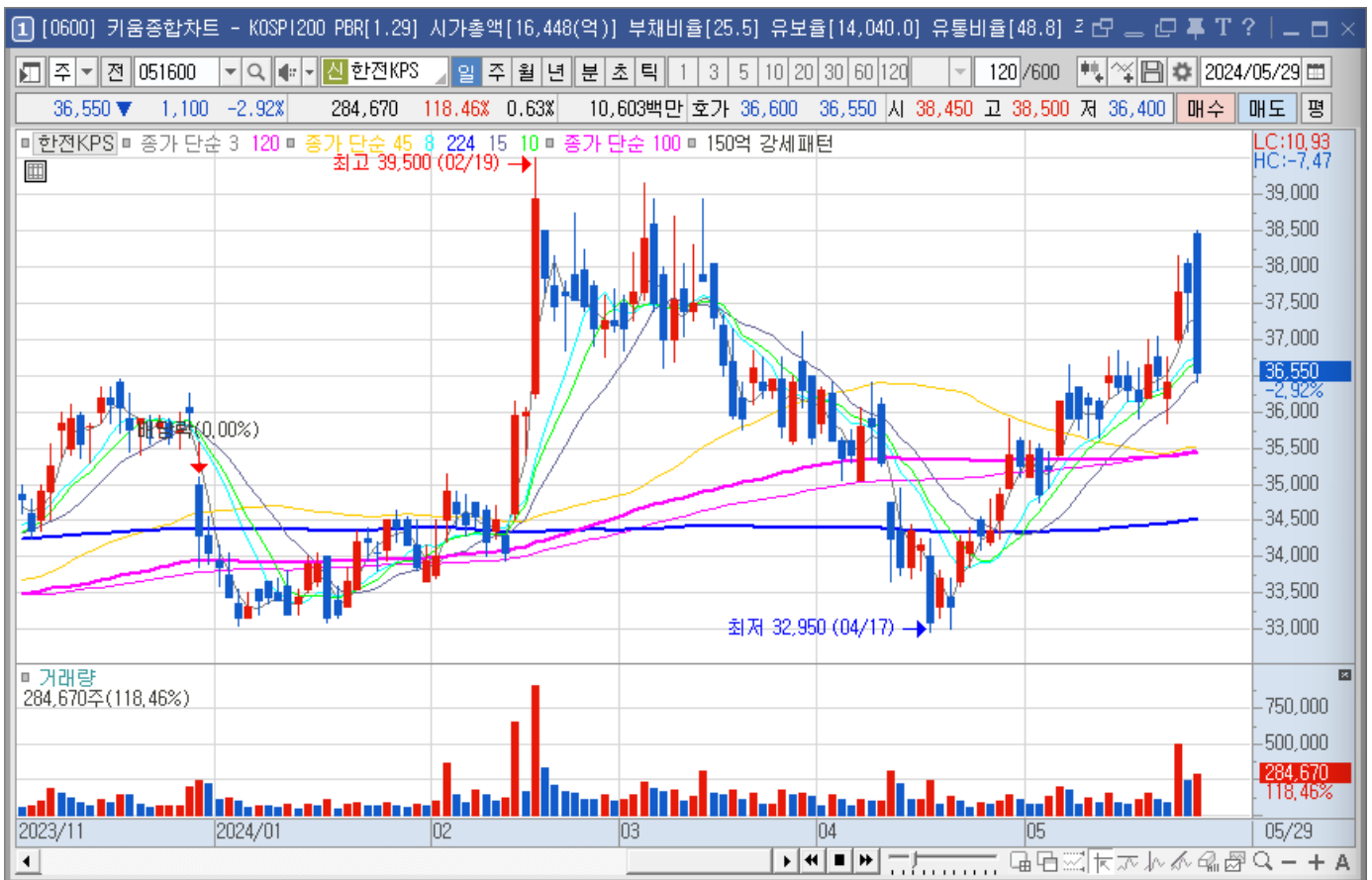
한수원이 주도하는 주요 해외 원전은 2024년 하반기 체코(4기)를 시작으로 2025년 폴란드(2기), UAE(2기) 등. 체코는 프랑스와 경쟁 입찰 중이지만 공기,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은 충분함. 폴란드와 UAE는 한수원 단독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수주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국내도 올해 중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신규 원전 2기 이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인건비 이슈는 6월 결과부터

인건비 내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3개년 평균치)에 의해 결정되며, 이미 B등급 기준 총당금을 설정함. 올해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봐야하지만, 재차 B 등급을 받더라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B등급 가정 시 2024년 영업이익은 1,853억원(-7% y-y)으로 배당성향 60% 기준 배당수익률은 5.2%로 추정

	2023	2024E	2025F	2026F
매출액	1,534	1,577	1,639	1,680
증감률	7.3	2.8	3.9	2.5
영업이익	199	185	204	209
증감률	52.7	-7.0	9.9	2.4
영업이익률	13.0	11.8	12.4	12.4
(지배지분)순이익	163	146	165	172
EPS	3,615	3,252	3,669	3,812
증감률	62.4	-10.0	12.8	3.9
PER	9.4	11.6	10.3	9.9
PBR	1.2	1.3	1.2	1.2
EV/EBITDA	5.9	7.1	6.4	6.0
ROE	13.1	11.2	12.1	12.0
부채비율	25.5	25.1	24.6	24.1
순차입금	-55	-128	-159	-197

단위: 십억원, %, 원, 배



유니드

세계 1위 칼륨계 제품 점유율 지속

[출처] IBK투자증권 이동욱 애널리스트

지속적인 증설로 세계 1위 공업용 칼륨 업체 지위 유지

동사는 세계 1위 공업용 칼륨염 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의 칼륨계 제품과 염소/염산 등 주요 제품은 반도체, 태양광, 석유화학,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사업에서 필수적인 기초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국내 설비의 지속적인 증설 추진 및 경쟁사 인수/플랜트 건설로 중국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추가적인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중국 호북성 이창에 18만톤 규모의 칼륨계 제품 생산능력을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1차 프로젝트 8.8만톤(KOH 기준)은 내년 1분기부터 가동에 들어가며, 광둥/충칭/사천/장시 등 주변 지역에 판매를 시작할 전망이다.

CPs 플랜트, 올해 하반기 본격 가동

동사는 염소계열 차별화 및 고성칼륨 플랜트의 안정적 가동을 위하여 CPs(Chlorinate Paraffin Wax)에 약 630억원을 투자하였다. 4월 시운전을 통하여 올해 하반기에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중국 강소성 내 CPs의 경우 2개 업체가 사업을 철수하여, 15만톤 정도 공급 부족이다. 이번 동사의 프로젝트의 생산능력은 9만톤으로 약 900~1,000억원 수준의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참고로 CPs의 경우 전기절연성과 열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하여, PVC, PU, 보온재, 페인트 등의 첨가제로 사용된다.

전해조 증설로 전력비용 감축 전망

동사는 원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비의 감축을 위하여 300억원을 투자하여 국내 전해조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에 완공되면, 동사의 전해조 생산능력은 기존 40만톤에서 48만톤으로 약 20% 증가할 전망이다. 전해조 증설로 인한 전력 원단위 하락으로 전기료 인상률에 따라 연간 50~70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또한 동사는 기존 인프라 보유로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증설 필요 시 전해조를 추가적으로 빠르게 설비 확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단위:십억원,배)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1,405	1,134	1,115	1,267	1,400
영업이익	148	32	111	132	148
세전이익	141	23	107	134	153
지배주주순이익	124	16	78	105	119
EPS(원)	14,550	2,403	11,471	15,479	17,611
증가율(%)	-29.1	-83.5	377.3	34.9	13.8
영업이익률(%)	10.5	2.8	10.0	10.4	10.6
순이익률(%)	9.0	1.4	7.0	8.3	8.5
ROE(%)	13.1	1.8	8.3	10.2	10.6
PER	5.6	28.2	9.6	7.1	6.2
PBR	0.6	0.5	0.8	0.7	0.6
EV/EBITDA	4.1	6.4	4.9	4.6	4.3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우리산업

전기차 둔화로 실적 하락, PTC 히터의 수주는 증가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1Q24 Review: 영업이익률 2.2% 기록

우리산업의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8%/-42% (YoY) 변동한 1,224억원/26억원(영업이익률 2.2%, -1.8%p (YoY))을 기록했다. 사업을 축소 중인 HVAC Actuator와 Clutch Coil이 45%/20% (YoY) 감소한 가운데, 핵심 제품인 히터류 매출액도 전기차 시장의 둔화로 55% (YoY) 감소했다. 경쟁회사의 사업 축소에 따른 반사 수혜와 고사양 제품군의 성장에 힘입어 Heater Control 어셈블리 매출액이 105% (YoY) 증가하면서 전체 외형은 성장했다. 지역별로는 한국/미주 매출액이 22%/11% (YoY) 증가했다. 외형 성장에도 영업이익률은 하락했는데,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제품 위주로 성장하면서 Mix가 약했고 신규 납품을 위한 경상개발비(+34억원) 및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영업외 외환손익이 개선되면서 세전이익/지배주주순이익은 각각 -20%/+2% (YoY) 변동했다.

히터는 전기차 둔화로 단기 감소했으나 수주는 계속 증가 중. 중장기 기여할 전망

우리산업의 성장동력은 역시 PTC/Coolant/COD 등과 같은 히터류 제품이다. 저전압 PTC 히터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친환경차용으로 쓰이는 고전압 PTC/Coolant 히터와 열관리 부품(냉각수 밸브/냉각수 제어 드라이버 등) 등이 증가하면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46%/34% 성장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둔화로 2023년 4분기와 2024년 1분기는 각각 38%/55% (YoY) 감소하며 부진했다. 당분간 전기차 생산에 연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 이후 수주받았던 제품군들의 매출화 시기가 2024년 이후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산업은 2023년~2024년 1분기까지 총 수주금액 1.9조원, 이 중 73%인 1.4조원이 히터류 수주였다. 고객별로도 현대차그룹(전체 수주 중 43%)뿐만 아니라 다임러(33%)/스텔란티스(12%)/기타(12%)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주로 2023년 5월 현대차의 북미/유럽향으로 고전압 PTC 히터(2,011억원/8년), 2023년 5월 유럽 완성차향으로 고전압 PTC 히터(658억원/8년), 2023년 8월 유럽 완성차향으로 쿨런트 히터(1,578억원/8년), 2024년 4월 중국 완성차향

으로 쿨러 히터(683억원/8년) 등이 있다. 한편,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중국 X사의 첫 전기차 모델에 대한 쿨러 히터는 모회사인 우리산업홀딩스의 중국 법인에서 생산하는 바 우리산업에는 관련 순 매출액의 5%에 상승하는 로열티가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 매출 기여는 크지 않다.

주가 하락으로 현재 P/E 8배대에서 거래 중

우리산업의 2024년 연간 매출액/영업이익은 완성차 생산증가와 Heater Control 어셈블리의 성장, 그리고 하반기로 예상되는 히터류 매출액의 회복/증가 등으로 +7%/-2% 변동한 4,924억원/201억원(영업이익률 4.1%, -0.3%p)으로 예상한다. 주가는 전기차 생산의 둔화로 히터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반영하며 하락한 후 2024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P/E 8배대, P/B 1.3배대의 Valuation에서 거래 중이다. 단기로 전기차 생산의 회복이 중요하지만, 중장기로는 2024년 이후 신규 납품되는 PTC/쿨러 히터의 성장을 반영할 것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289	284	365	462
영업이익	10	(7)	(25)	20
세전이익	9	(3)	(22)	21
순이익	5	0	(18)	18
EPS	574	42	(1,968)	1,939
증감율	(28.4)	(92.7)	적전	흑전
PER	41.5	490.5	(6.7)	7.3
PBR	1.8	1.6	1.4	1.3
EV/EBITDA	11.3	46.9	0.0	7.0
ROE	4.5	0.3	(21.6)	18.0
BPS	12,890	12,845	9,123	10,771
DPS	120	130	150	165





동인기연

하이엔드 아웃도어 ODM 최강자

[출처] DS투자증권 김수현 애널리스트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고객사 확보

아웃도어 배낭, 캐주얼 가방, 캠핑 용품 (텐트 / 보냉백), 골프가방 및 하네스의 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ARC'TERYX, GREGORY, Black Diamond, Mont-Bell, YETI, THULE 등 글로벌 최고 명성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이들을 포함 연평균 40개 이상의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다양한 제품 제작 수주를 하고 있으며 고객 요청 사항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 생산 및 ODM 방식을 채택 중이다. 30년 이상의 업력과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96년 필리핀 첫 생산 법인 설립 후 필리핀 10개, 베트남 1개의 생산 법인을 운영 중에 있다.

필리핀 생산 거점을 활용한 원가 절감은 물론 미국 수출의 최대 수혜

필리핀에만 약 1만 1천여 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 중에 있다. 필리핀 생산 거점 활용은 동사의 성장과 수익성에 있어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필리핀 현지 전문 제조 공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국내 대비 1/6~최대 1/10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필리핀 생산은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가 적용되면 북미향 수출 관세가 기존 17%에서 0%로 하락하여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현재 동사의 북미향 매출 비중은 85%에 달한다. 필리핀 생산

거점은 영어를 기반으로 한 수월한 소통이 가능하며 직원들의 작업 숙련도 측면에서 베트남 등 기타 아시아 대비 월등히 우월한 환경이다. 한국에서 20명이 작업하는 알루미늄 프레임 조립은 필리핀에서는 6명이면 충분하다. 필리핀 진출에 투자를 쏟은 이유 중 하나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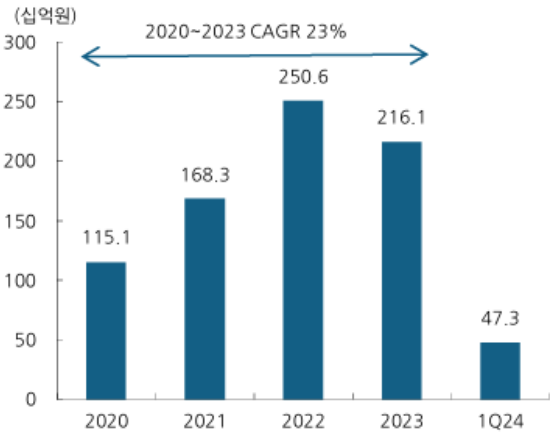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24년 예상 순이익 262억원에 상장 과정에서 적용된 Peer group PER 멀티플에 30% 할인한 8배를 적용했다. 할인의 근거는 높은 금리가 당분간 유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소비 심리 악화 가능성을 반영했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0	251	216	262	318
영업이익	0	43	28	37	41
영업이익률(%)		17.0	13.1	14.0	13.0
세전이익	0	37	27	35	44
지배주주지분순이익	0	28	20	26	33
EPS(원)	0	6,523	3,325	4,226	5,384
증감률(%)	적지	적지	-49.0	27.1	27.4
ROE(%)	n/a	n/a	22.3	18.1	19.6
PER(배)	n/a	n/a	6.4	5.7	4.5
PBR(배)	n/a	n/a	1.0	1.0	0.8
EV/EBITDA(배)	n/a	2.1	5.1	4.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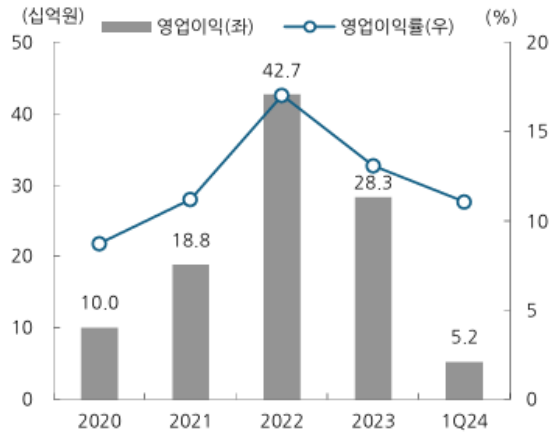
자료: 동인기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그림2 동인기연 매출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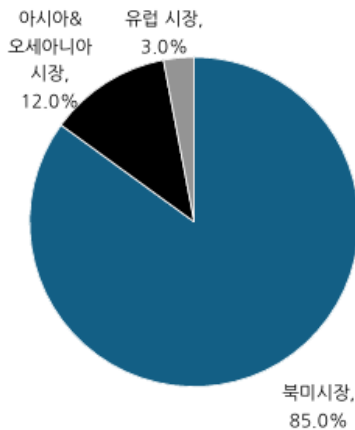
자료: 동인기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동인기연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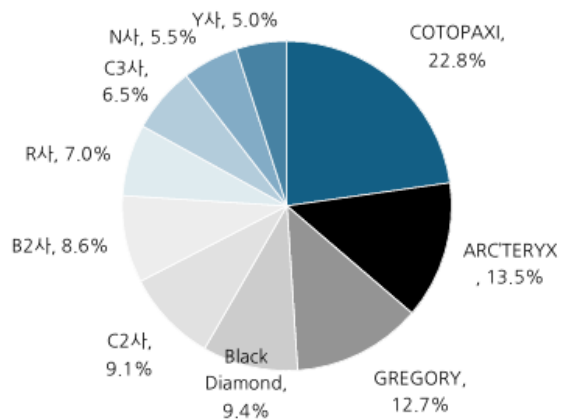
자료: 동인기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권역별 매출 비중



자료: 동인기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3년 매출액기준

그림5 편향되지 않는 매출구조



자료: 동인기연,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4년 1Q 매출비중 Top 10 기준



한올바이오파마

경쟁사 2상 성공 시, 우리도 3상 진입 가능

[출처] DS투자증권 김민정 애널리스트

Argenx, 경쟁사의 2상 결과를 토대로 자체 임상 2상 생략

Argenx는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쟁사이다. Anti-FcRn 중 가장 먼저 출시한 Vyvgart를 보유하고 있다.

Argenx는 최근 Vyvgart PFS로 TED 임상 3상에 진입하였다. 재미있는 점은 비브가르트는 TED 임상 2상을 진행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Argenx는 경쟁사 이뮤노반트가 IMVT-1401의 2상 결과를 바탕으로 IMVT-1402 임상 2상을 생략하고 3상에 진입하는 전략과 유사하게 경쟁사 이뮤노반트의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2상을 생략하였다. 이로써 향후 anti-FcRn은 경쟁사의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2상을 생략한 뒤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전략이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쇼그렌증후군 역시 Argenx는 니포칼리맵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 3월 36명 간이 임상 2상만 진행한 뒤 3상 속행).

TED 적응증 내에서는 Argenx가 PFS 자가주사제로 진입하는 만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올바이오파마의 IMVT-1402는 후발 주자로서 경쟁사가 미리 PoC를 입증한 적응증에 대해 3상으로 진입이 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다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J&J의 니포칼리맵, 쇼그렌증후군 P2 데이터 발표 임박

'24년 2월, J&J은 anti-FcRn 니포칼리맵이 쇼그렌증후군 임상 2상을 성공하였음을 밝혔다. J&J의 쇼그렌증후군 임상 2상의 자세한 데이터는 EULAR2024에서 6월 15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기준) 발표될 예정이다. 쇼그렌증후군은 미국 내 환자 수만 약 33만명에 달하는 자가면역 내 거대 시장 중 하나이다. antiCD40L Dazodalibep의 쇼그렌증후군 P2 데이터와 비교하여 anti-FcRn의 예상 Market share를 추산, 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Top pick.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5,000원으로 상향

당사는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하여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65,000원으로 상향하며 바이오텍 Top pick으로 추천한다. '23년 12월 그레이브스병 임상 2상에서 훌륭한 결과를 입증한 점을 토대로 성공률을 상향하였다. 향후 1~2년 내 다수의 임상 3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F	2025F
매출액	102	110	135	160	190
영업이익	10	2	2	19	37
영업이익률(%)	9.9	1.4	1.6	11.9	19.5
세전이익	9	2	4	20	38
지배주주지분순이익	9	0	3	20	39
EPS(원)	170	5	50	398	752
증감률(%)	-55.0	-97.1	911.5	700.6	89.1
ROE(%)	5.2	0.2	1.5	11.8	19.1
PER(배)	123.6	3,624.5	506.3	86.5	45.7
PBR(배)	6.7	5.5	8.1	9.8	8.1
EV/EBITDA(배)	84.9	198.4	235.1	77.1	41.9

자료: 한올바이오파마,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K-IFRS 연결기준



